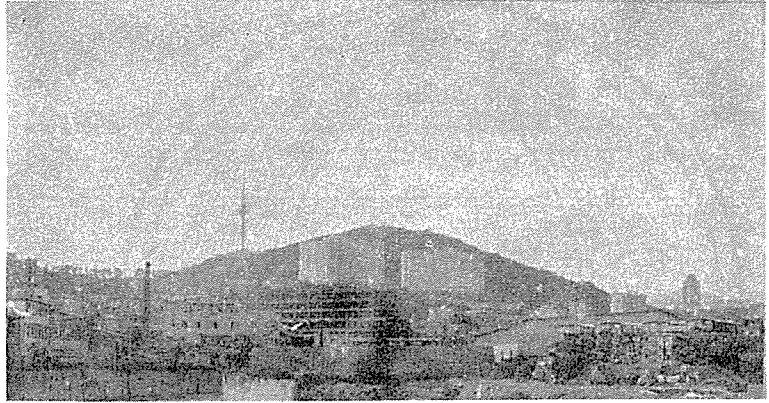


南山을 害치는 建築物



都市美觀에 기여하는 自然의 重要性

무릇 世界의 아름다운 都市들을 살펴보면 어떤 美都든지 人工的으로만 이룩된 例는 거의 없는 것 같다. 世界的으로 아름다운 都市들을 살펴 보면 大部分 아름다운 自然을 바탕으로, 그 위에 人工的인 要素가 調和되도록 加美되었고, 또 精誠들여 가꾸어 비로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自然을 種類別로 分析하여 본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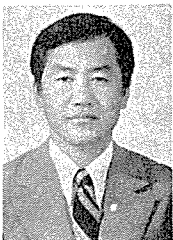
첫째 푸른 바다와 멋있는 屈曲으로 이루어진 灣으로 된 臨海都市 또는 港口都市로서 例를 들자면 Brazil의 Riode Janeiro, Sydney, Hong Kóng 등이 있고.

둘째로는 푸른 江을 中心으로 發達된 都市의 部類로, 大部分의 有名한 都市들이 여기에 屬한다. 本來의 江을 中心으로 人類의 歷史와 文明이 發達되어 왔기 때문에 江이 없는 都市를 찾아보기가 힘들 程度일 것이며, 代表的으로는 런던의 Thames 江, 파리의 Seine 江, 카이로의 Nile 江, 로마의 Tiberi 江 등을 列挙할 수 있다.

셋째로는 湖水를 中心으로 發達된 都市로 제나바, 시카고, 취리히 등을 들 수 있다.

넷째는 島嶼로 이루어진 都市로서 Stockholm과 같은 것을 例를 들 수 있다. (이 都市는 14개의 섬이 連結되어 都市를 形成하고 있음).

다섯째는 山으로 둘러싸인 都市로 서울(勿論 江도 있지만)을 들 수 있다.



金正湜
(正林建築研究所)

이와같이 무릇 모든 아름다운 都市들의 美의 根本이

첫째 아름다운 自然을 갖고 있으며

둘째 이 自然과 調和되는 都市計劃과 建築으로 即 人工的으로 가꾸었으며

셋째는 精誠을 다하여 가꾸고 綠化한 것을 알 수가 있다.

都市는 女人과 같아서 本바탕이 늘씬하고 예뻐야 마음에 들며, 여기에 적절한 모양과 色의 옷을 입고 精誠들여 化粧을 한다면 더욱 돋보이

는 법이 아닐까? 元來 바탕이 좋은 女性은 不必要한 또는 어설픈 化粧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自然스럽고 사랑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이제 우리의 首都인 서울을 관찰해 보면 굽이치는 漢江이 都心을 閼通하고 있고, 北에 北漢山, 南에 南山이 雄居하여 李朝初創期에 鄭道傳과 舞鶴大師에 依하여 이곳에 首都로 定하여질 때 風水地理에 依하여 名堂자리로 挾하여졌 다고 하거니와 江과 병풍처럼 둘러싸인 名山이 자랑이 아닐 수가 없다. 外國에도 몇몇 都市에 山을 가지고 있으나 서울처럼 近距離에 아름다운 山을 가진 곳은 흔하지 않은 것 같다.

山과 綠地의 重要性

原來 우리나라는 山이 많아 山의 眞價를 모르고 오히려 平地가 있으면 하고 願하는 國民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砂漠의 나라나, 海水面보다 낮은 地帶를 埋立하여 사는 和蘭같은 나라에 가 보아야 비로소 山의 價値를, 山의 貴함을 認識하게 되는것 같다. 和蘭에서는 모래를 언덕처럼 쌓아놓고 그위에 풀을 심어“이런 것이 山이다” 라고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듯 가다가도 끝이 없는 平野나 누른 砂漠만을 볼 때, 그 單調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기 마련이고, 곧 싫증을 느끼기 마련이다. 이에 比하면 韓國의 山들은 靈氣가 서려있으며, 東海岸의 山들 또는 서울市 周邊의 山(三角山) 등은 東洋畫에 나오는 山水畫의 畫폭처럼 이쁘고 멋이있지만 하다. 이런 山들은, 外國의 민민한 山과는 類가 다르며, 市内에서 손만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어 市民들의 疲勞를 回復시켜주는 都市는 世界에서 그리 쉽지 않아 分明히 서울의 名物에 屬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이들 山으로 因하여 都市가 立體化되어 지루함을 없애주는 効果도 가지게 마련이다. 이제 綠陰이 都市에 미치는 影響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내가 北歐 Europe 를 旅行하다가 歸國길에 Athen 을 찾아 갔을 때, 어쩌면 꼭 서울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은 때가 있었다. 飛行機上에서 Athen 을 내려다 보았을때, 몇군데 山에 약간의 綠陰이 있을 따름 만 곳은 別로 나무도 없는 메마름이 신통하게도 우리나라의 都市가 恰似하였고, 特히 山頂上까지 住宅으로 占有되어 있고, 비교적 花崗石이 많았고 氣候도 乾燥한 것 같아 마치 우리나라에 到着했다고 착각을 일으킬 程度였으며 北歌에 比하여 Green 이 적은데 對하여 于先 都市自体가 荒廢해 보였으며 또 무엇인지 모르게 疲困해 보이는 것을 否認할 수 없었고, 어쩌면 文明의 尺度를 나타내는 指數처럼 느껴져 後進國에 온것같은 느낌마저 가져 보았다. 이렇듯 綠陰이 있으면 都市를 부드럽게 潤沢하게 보이게 하며, 都市全体에 對하여 아주 좋은 印象을 갖게끔 한다. 綠陰이 없는 곳은 砂漠과 같아 그 속에서 發見되는 나무의 存在는 오아시스처럼 사람들에게 生命력을 넣어주며 希望과 休息處를 提供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近來에 이르러서는 空氣汚染이 날로 甚하여지고 있는데, 炭素同化作用을 하는 나무마저 없어진다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 分明하다. 이렇듯 綠地의 必要性은 都



市美에 絶對的 役割을 하는 것을 감안할 때, 自然綠地로서의 南山이나 其他 서울周邊의 모든 山들의 價值는 再言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南山의 蠶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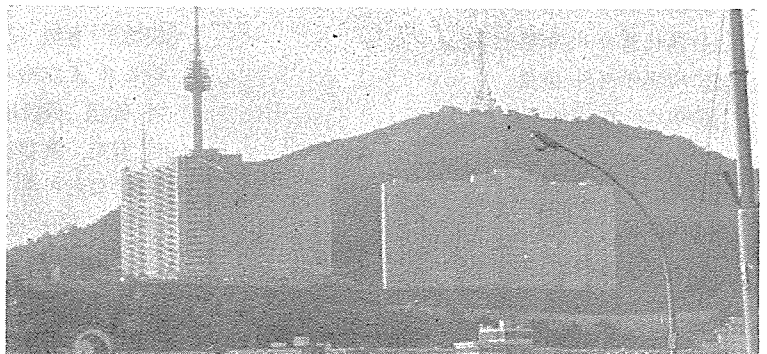
서울 周邊의 山, 特히 서울의 象徴的인 南山이 漸次로 蠶蝕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月10日 東亞日報에서도 지적했듯이 277萬m²에 비해 37.5%에 該當되는 104萬m²(約 31萬 5千坪)이 侵蝕된 것으로 밝혀져 메마르고 답답한 市民들의 情緒生活이나 公害對策을 爲해서도 더이상 좁혀서는 안되겠다고 記述하고 있다. 特히 이들의 蠶蝕이 市民들을 爲한 政府機關이나, 文化事業을 爲한 施設用地로 使用하기 위한 것도 많지만, 一部 特殊한 個人에게 特惠를 주기 爲하여 當局이 無理하게 一部 公園用地를 拂下해 준 것도 있으며, “公園地는 占有만 해 두면 언제고 拂下받을 수 있다”는 市民들의 無斷占有行爲를 強更하게 處理하지 못하고, “風治地區”다, “再開發地區”다 해서 拂下해 준 事例도 많기 때문이다. 特히 여기서 筆者가 主張하는 것은, 이런 類의 侵蝕뿐만이 아니라, 建物로 南山을 병풍처럼 둘러싸아 나아가는 것과, 自然을 害치는 構造物의 亂立인 것이다. 地方에서 高速道路를 따라 서울로 들어서면서 安堵의 숨을 내어 쉬며 市内를 바라볼 때, 南山을 온통 감싸고 있는 南山 외인아파트(사진-① 參照)를 보면 建物의 優劣을 感知하기 以前에 저렇게 아파트로 둘러싸아 나아간다면 南山이 몇 해 못가서 우리들의 視野에서 사라질 것이고, 南山이 있어도 市民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단지 아파트의 專用山이 되며 헬리콥터나 타고 보아야 보이지 않을까? 아파트 以外의 낮은 곳에서 사는 小市民들에게는 보아서 안되는 산이었든가? 고 念慮하게 된다. 나는 이 場面을 볼 때마다 6百萬 市民의 唯一한 오아시스를 앓아 가는 것같이 어떤 분노와 아쉬움을 느끼곤 하는데, 이것은 나만이 느끼는 感情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筆者는 이 병풍아파트를 생각할 때, 于先 이런 무모한 計劃과 雄壯한 建物만을 要求하여 自己事業의 充足과, 實績 또는 業績만을 誇示하려는 建築主와 無判別하게 要求條件에 應하여 都市全體的 眼目에서 檢討하지 않았고 좀더 좋은 案을 提示하여 事業主를 說得하지 못한 建築家의 失責과 都市全般的인 次元에서 檢討했어야 할 當局에도 責任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아파트를 볼 때마다 과연 어떤 形体의 建物이 山의 形体와 Green 을 살리면서 目的을 達成할 수 있었을까? 或 Tower 形体를 並立 시킨다면 山의 屈曲과 Green 이 建物사이로 보여 약간 改善되지 않을까? 또는 Low rise Apart 또는 連立式住宅을 分散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나 이런 問題以前에 果然 이 아파트를 반드시 이 場所에 建立했어야 할 것이었든가? 라는 根本問題부터 생각하게 된다. 또한 近來에 南山山頂에 送信을 主目的으로 하며, 同時에 市内觀光을 兼할 수 있는 Tower 를 볼 수가 있다(사진-② 참조). 筆者는 이 Tower 를 볼 때마다 이것이 南山과 잘 調和되고 있는가? 를 생각하며 또 分析을 해 보았다. 送信은 그 必要性을 認定하나, 市内를 조감한다는 理由는 남득이 가치를 잃기 때

② 南山에 있는 Tower



문이다. 南山은 市内를 내려다 보기에 充分한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구태여 Elevator 等の Mechanism 을 利用하여 Concrete Tower 로 올라 갈만한 理由가 있을까? 大部分의 外國의 경우를 살펴 보면, 워싱턴의 塔, 런던의 塔, Rotterdam의 Euromast, Hamburg의 塔, Tokyo Tower, Paris의 Eiffel Tower 等이 都市의 象徴的 役割 또는 Landmark로서의 役割을 하며, 送受信은 勿論, 眺望塔의 役割을 担当키 爲하여 普通平地로 된 都市에 建立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南山위의 塔은 좀 類가 다르지 않을까? 그 理由는 南山自体가 方向感覺의 役割과 Landmark 상징, 또한 市内를 觀覽할 수 있는 充分한 mass와 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塔은 于先 意義自体가 모호하며, 塔自体가 아무리 아름답게 設計되었더라도 自然 그대로의 南山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며, 오히려 自然을 害치는 結果가 아닐까? 나는 이 塔과 現在 市民들에 愛用되고 있는 八角亭을 比較하여 생각해 보았다. 現 八角亭이 韓國의이며 山과 綠陰에 운치있게 어울리는데 反하여 塔은 現代 材料 特有的 剛直性과 形態의 딱딱함이 自然과 完全히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南山과 600萬 市民이 사는 서울을 支配하려 드는 것같은 느낌이 든다고나 할까? 不快感을 주며 現在는 아마도 Elevator를 타는 것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10年 以内에는 南山까지 찾아가 또다시 Elevator를 타고 塔頂上까지 올라갈 사람은 시골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이야기일까? 나는 차라리 南山위에 四方으로 몇개의 八角亭과 같은 것을 두어 시원한 바람을 마시며 市内를 구경하는 것이 더욱 매력있는 일이지 아닐까 생각한다. 特히 外國人의 眼에는 과연 어느 쪽을 좋아 할까? 를 생각해 본다면 自明하며 韓國的인 운치를 찾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런 塔은 韓國外에서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筆者는 여기서 前記한 아파트나 Tower의 作品을 論하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우리의 貴重하고도 唯一의 綠地와 休息處가 가려지거나 破壞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強調할 뿐이다. 이런 現狀의 再發을 防止하려면 建築家自身은 勿論, 当局과 建築主들이 虚心하여 自己自身の 責任만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結果自体의 造形美는 勿論, 隣近周邨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서 都市 또는 國家의 次元에서 檢討하는 신중한 態度가 있어야 할 것으로 思料되며, 서울의 名物인 南山을 우리 建築家들이 善選하여 保護해야 될 것이다. 또한 市内에 좀 더 많은 나무를 심고 가꾸어 서울市가 메마른다는 印象을 없이해야 할 것은 當然하고, 나아가 潤沢한 都市로 化하도록 努力해야 될 것이다. (끝)

(1973. 9. 17)



① 南山을 가리우고 있는 병풍 아파트